

中國思想의 構圖에서 본 文化大革命*

- 이른바 儒法鬭爭論을 中心으로 -

鄭 仁 在

목 차

I. 序 言

II. 文革과 破四舊

III. 批林批孔과 儒法鬭爭

IV. 文革後의 孔子 및 儒家에 대한 再評價

V. 마 무 리

I. 序 言

中國은 1966-1976年間 混亂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文化大革命'을 '10年 動亂'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쓰라린 經驗을 딛고 서서히 現代化에 힘써 눈부신 經濟成長을 이루어고 있다. '文化大革命'이란 文化의 領域에서 全國的인 革命을 하겠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毛澤東이 그의 <新民主主義論>에서 거론된 反封建, 反帝國를 더 철저히 밀고나가 無產階級의 새로운

* 이 연구는 1992년도 敎育부 지역연구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文化를 建設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반대로 中國文化에 커다란 破壞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즉, 옛날의 文化遺産은 파괴되었으나 새로운 文化는 建立되지 못하고 오히려 文化的인 空白을 이루었던 것이다. 馮友蘭은 그 당시 狀況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毛澤東의 極左思想은 文化大革命으로 나타났다. 이 큰 動亂은 확실히 歷史에 前例가 없었던 [史無前例] 것이며, 社會象의 일체를 모두 하늘땅을 뒤집어 엎어버리듯 휘저어 놓았다. 學校에서는 先生이 學生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學生이 先生을 가르치고, 듣건대 毛澤東이 이렇게 직접 입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삼랑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삼랑을 가르친다.’ 病院에서는 의사가 간호원 노릇을 하고 간호원이 의사 노릇을 한다. 大學의 學生은 考試를 통하여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工場, 인민공사, 그리고 부대에서 추천해 들어온 것이므로 ‘工農兵學員’이라 일컬었다. 그들이 맨처음 학교에 진행해 들어올때 깃발과 북을 크게 치면서 學員들은 毛澤東에 半身석고상을 떠받들거나 머리에 이고서 그들은 승리했으며 知識분자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단지 毛澤東에 한마디 行政命令만 있으면 곧 지식의 寶庫에 進入하고 科學의 高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²⁾

이와같이 ‘極左敎條主義者’들에 의하여 發動된 ‘文革’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文化大革命 발동에서 中國共產黨 第9次 全國代表大會까지 이다 (1966년 5월 - 1969년 4월). 둘째 단계는 黨의 ‘9次大會’ 이후부터 黨의 第10次 全國代表大會까지이다 (1969년 5월 - 1973년 8월). 셋째 단계는 黨의 ‘第10次大會’以後에서 ‘四人幫’이 沒落하여 文革이 끝나는 시기까지이다(1973년 9월 - 1976년 10월).³⁾

1)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 第2卷 659쪽, “所謂 新民主主義文化, 一句話就是 無產階級領導的 人民大眾的 反帝反封建文化”.

2) 馮友蘭, <中國現代哲學史>(香港, 中華書局, 1992年), 171-172쪽.

3) 肖效欽, 李良志, <中國革命史>, (北京, 紅旗出版社, 1983), 117-121쪽.

마르크스의 階級鬭爭은 權力鬭爭과 아울러 그 권력을 쥐고 있는 人物의 思想, 意識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文化大革命에서 批林은 분명히 權力鬭爭의 일면이지만, 批孔은 그 思想的인 鬭爭인 것이다. 文革을 論하면서 대부분 前者에 重點을 두어 왔으나 本稿는 後者에 관심을 두고 세계 단계에서 進行되었던 이른바 '儒法鬭爭史'의 내용과 그 후에 나타난 儒家에 대한 再評價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文革과 破四舊

文化大革命이 일어난 해 6월 1일자 <人民日報> 사설 <擴掃一切牛鬼蛇神>에서 '破四舊'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社說의 論調는 두가지를 겨냥한 것인데 그 하나는 이른바 資產階級의 代表인물, 전문가, 학자, 권위 '祖師爺'를 牛鬼蛇神이라 몰아붙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舊思想, 舊文化, 舊慣習을 깨뜨려 부수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破四舊'운동이 일어나 "매리고[打], 내리치고[자], 빼앗고[捨], 몰수하고[抄], 붙잡아가는 [조] 등" 폭력사건이 수없이 일어나 法制가 파괴되어 버렸다.

1966년 8월 中共 中央은 <無產階級 文化大革命에 관한 결정>에서 破四舊를 文革의 임무중 하나로 삼았다. 말로는 "文鬭를 해야지 武鬭를 하지 않는다." [用文鬭, 不用武鬭]고 하면서 실제로는 폭력사건이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舊書를 禁하고 태워버리는 것은 바로 破四舊의 重要내용 중 하나였으므로 이 과정 속에서 儒家의 文物典籍이 가장 큰 손실을 당하였던 것이다.⁴⁾ 작년(1992) 필자가 孔廟에 갔을 때 깨어진 비석을 쇠뿔로리로 바쳐서 다시 세운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안내자의 말에 의하며 文革때 파괴된

4) 宋仲福, 趙吉惠, 悲大洋, <儒學在現代中國>, (鄭州, 中國古籍出版社, 1991年), 327-329쪽.

것을 다시 復原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北京의 어느 고등학교 한 이름난 造反派인 斗斗가 紅衛兵들을 데리고 이곳에 이르러 진귀한 古跡을 파괴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의 公共圖書館, 학교도서관, 자료실은 모두 古籍의 대출과 열람이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개인장서까지도 대부분 모두 압수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현대판 ‘焚書坑儒’나 다름 없었으며, 文物, 典籍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批林批孔의 기치하에 儒家사상을 비롯한 修正主義 경향을 가진 사상등 사상적인 탄압을 자행하게 된 것은 바로 文革末期에 자행되었던 것이다. 文革初 3년동안 전국적인 亂動을 거쳐 劉少奇를 타도하는데 성공한 毛澤東은 林彪를 그 후계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林彪는 毛澤東의 뜻과는 달리 毛澤東을 살해하고 政變을 일으켜 최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소련으로 도망가다 中國과 몽고국경근처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다.⁵⁾

林彪가 죽은뒤 周恩來가 毛澤東의 지지하에 중앙의 일상적인 일을 맡아 처리하였다. 周恩來는 林彪 등이 저지른 文革의 極左思潮를 비판하는 동시에 점차 지식인, 간부정책 및 경제, 교육, 외교정책을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江青등 四人幫은 極左思潮를 비판하는 것에 반대하고 極右思潮를 비판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毛澤東은 당시의 임무는 여전히 極右를 비판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1972년 12월 7일의 談話에서 林彪는 “極右, 修正主義이며 分裂, 陰謀, 위計, 叛國反黨”분자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周恩來의 의견을 직접 부정하고 江青등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1973년 3월 毛澤東이 중앙회의에서 林彪를 批判할 때 孔子도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7월 4일 毛澤東은 王洪文, 張春橋와 이야기하면서 周恩來가 주관하는 外交部를 비평하였다. 그는 孔子를 비평하는 문제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林彪는 國民黨과 마찬가지로 모두 “孔子를 존중

5) Witold Rodzinski, 신용철, 신정현 공역, (서울, 탐구당, 1990년), 173쪽.

하고 法家를 반대한다”[尊孔反法]고 말하였다.

毛澤東은 8월 5일 楊榮國이 쓴 <孔子-奴隸制를 완고하게 옹호한 사상가>라는 글을 읽은 뒤 江青에게 中國歷史上的 儒法鬭爭史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法家は 中央執權 郡縣制를 주장하여 역사상 일반적으로 말해 前進의이다. 그것은 厚今薄古의이다. 그런데 儒家는 그것은 입으로 仁義道德을 가득 외치면서 뱃속은 男盜女娼이다. 그것은 厚古薄今의이며 수레를 거꾸로 모는 것이다.”⁶⁾

여기서 毛澤東은 儒家를 復古主義라 비난하고 法家를 進步主義라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儒家는 허위의식에 가득찬 도덕으로 간주하여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1973년 8월 7일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人民日報>는 楊榮國의 앞의 글을 全文轉載하였다. 毛澤東은 孔子보다는 法家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法家인 李斯, 韓非子의 사상에 의하여 六國을 통일한 秦始皇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그에 견주어 보기도 하였다. 그는 9월 23일 이집트 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秦始皇은 中國봉건사회의 한 유명한 황제이다. 나도 秦始皇이다. 林彪는 나를 秦始皇이라 욕하였다. 中國은 역대로 두파로 나뉘는데 한파는 秦始皇이 좋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한파는 秦始皇이 나쁘다고 주장한다. 나는 秦始皇을 찬성하지 孔夫子를 찬성하지 않는다.”⁷⁾

毛澤東은 어째서 法家和 秦始皇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中國의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의 도식에 맞추어서 보기 때문에 儒家는 保守, 法家は 進步라는 틀을 갖게 되었으며, 階級鬭爭과 不斷革命論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儒家의 中和精神은 革命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6) 주3)과 같은 책, 331쪽.

7) 金明春, <文化大革命論析>,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5年).

革命的 포기는 결국 修正主義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林彪를 '極右, 修正主義'라고 비판한데서 나타났으며, 毛澤東은 周恩來의 '文革'의 착오를 시정하려는 조치까지도 修正主義로 이끌 것이며 文化大革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1973년 8월 楊榮國的 글이 <人民日報>에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評法批儒'의 활동을 전개하여 '右傾回潮'의 운동을 반대하였다. 이것이 1974년 초에 다시 '批林批孔'운동으로 발전되었다. 評法批儒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던 이들은 '四人幫'과 康生이 직접 콘트롤하는 3개의 조직(寫作班)이었다. 첫째는 江靑이 리드하는 '北京大 清華大學批判組'(1973년 10월 설립)이며 그 필명은 梁效, 柏靑, 高路, 秦懷文 등이었다. 이 批判組가 성립되자 江靑은 林彪의 주택에 進住하여 조사할 때 林彪가 쓴 '尊孔'의 筆記를 발견하여 批林批孔의 자료로 삼았다. 둘째는 上海市委員會 寫作組인데 그들은 <學習과 批判>이란 간행물을 출간하여 전국적으로 評法批儒를 여론화하였다. 그들이 쓴 筆名은 羅思鼎, 康立, 石侖 등이었다. 셋째는 康生이 콘트롤하며 趙紀彬을 顧問으로 삼은 中央黨校 寫作組인데 筆名은 唐曉文, 辛風, 史錦 등이었다.⁸⁾

毛澤東이 文革을 통하여 孔子를 批判했던 것은 물론 정치적 이유를 배 놓을 수 없다. '批林批孔'에서 '批孔'은 현재의 周恩來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그러면 周恩來는 어째서 當代大儒로 批孔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 투쟁 이외의 요소이며 사상적인 견해차이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周恩來가 毛澤東 사상을 뒤쫓아가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다른 경향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즉 毛澤東이 가혹한 정치적 투쟁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인데 그것은 그의 人品이 儒家的인 和諧精神을 가지고 지식인과 백성들에게 투쟁이 아닌 休息을 주는 讓步政策을 썼기 때문이다. 그것은 鬭爭을 강조하는 極左傾的

8) 주3)과 같은 책, 333쪽.

‘四人幫’에게 비판의 구실을 주는 것이었다. 四人幫은 2000여년의 中國역사를 ‘儒法鬭爭’의 도식을 만들어서 ‘批孔’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III. 批林批孔과 儒法鬭爭

儒法鬭爭은 孔子를 批判하기 위하여 Marx主義의 도식을 억지로 中國사상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글에 나타난 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毛主席이 친히 발동하고 이끈 批林批孔運動은 상부구조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修正主義를 싸워 이긴 것이며, 無產階級이 자산계급을 싸워 이긴 정치투쟁이요 사상투쟁이다. 批林하면 모름지기 批孔해야 된다. 批孔하지 않으면 批林은 철저히 못하고 反修도 철저히 할 수 없고 防修는 보증이 없다. 마르크스주의 입장·관점·방법연구로 儒法鬭爭과 전체 階級鬭爭의 역사경험을 총결해야 한다.”⁹⁾

이 글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批林은 정치투쟁이요 批孔은 사상투쟁임을 알 수 있다. 批林批孔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이론대로 하부구조의 모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權力鬭爭의 일환으로 생긴 정치투쟁·사상투쟁이다. 또 정치투쟁보다 사상투쟁이 더 근원적이므로 批孔하지 않으면 批林도 修正主義를 반대하고 그것을 防止함도 철저히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에서 제시한 反封建이 批孔으로, 反帝國이 反修 또는 批林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儒法鬭爭은 中國의 2000년 역사에서 서로

9) 北京大學儒法鬭爭史編寫小組, <儒法鬭爭史概況>, (北京, 人民出版社, 1975年), 1쪽.

다른 시기에 또 다른 계급적 기반과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드러났는데 그것은 요컨대 革新과 守舊, 前進과 退步의 두가지 노선투쟁이라고 보면서 儒家는 守舊와 退步, 法家는 革新과 進步의 사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四人幫의 추종자들에 의하면 그들과 함께 공산주의운동에 헌신했던 陳獨秀, 王明, 劉少奇 등을 林彪와 함께 묶어서 機會主義者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機會主義 노선을 추진, 실행하고 無產階級革命을 반대하고 無產階級專制政治를 뒤집어 엮고 크게 자본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 孔孟之道를 고취시키며, 法家를 악독하게 공격하고 저주하는데 그들은 현대의 儒家이다.... 또한 모두 尊儒反法을 크게 일삼는다.”¹⁰⁾

그들은 孔孟은 資本主義, 法家는 無產階級の 革命, 專制政治를 각각 대변하는 근대사상의 원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방법을 써서 儒法鬭爭을 연구하여 孔孟의 道를 비판하고 일체의 尊儒反法の 反動思想을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제일 먼저 ‘文革’ 당시 제시한 것은 楊榮國의 글 <孔子 - 奴隸制를 완고하게 옹호한 사상가 ->이었다. 그는 文革 以前 30여년전부터 이미 孔子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관점을 제출한 적이 있다. 60년대 초기 孔子哲學을 토론하는데 참가하여 부분적 수정을 하였으나 그 기본관점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며 文革때 ‘批林批孔’의 이론적인 지도작업을 하면서 30여년전의 전면부정론을 회복하였다. 그의 批孔論調는 毛澤東의 노선을 대표하는 것이며 사람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官方學說이 된 것이다. 심지어 중공학계의 老大家마저도 과거엔 그의 견해를 무지하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다가 文革 당시에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孔子를 반대하기에 이르렀다.¹¹⁾ 정치투쟁에 객관적인 학술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보

10) 同上.

11) 中共研究雜誌社編委會, <共匪「批孔」資料選輯>, (臺北, 中共研究雜誌社, 1971

여준 것이다.

楊榮國은 마르크스주의 역사발전의 도식을 中國 고대사상에도 적용시켜, 춘추시대는 노예제가 점차 몰락하고 새로 일어난 봉건세력이 나타나 두 계급이 서로 투쟁하였는데, 孔子는 춘추말기에 살면서 魯國公室의 노예주통치를 옹호하고 당시 새로 일어난 지주계급인 三家(季孫, 孟孫, 權孫)의 세력을 격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孔子가 魯國의 司寇가 되자마자 저명한 革新派 인물인 少正卯를 죽였는데 이것은 당시 階級鬭爭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孔子사상의 핵심은 '仁'인데 이것은 원래 殷周 노예주계급의 이데올로기(의식형태)라는 것이다. 殷周노예주통치자는 노예주 계급의 단결을 위하여 '仁'을 제창하였는데 孔子는 '仁'에 대하여 체계적인 귀납을 통하여 孝悌, 忠恕, 正名, 德, 智 등등 많은 내용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孔子는 顏淵의 질문에 "克己復禮하면 天下가 仁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楊榮國은 노예주들이 자기네의 욕망과 행동을 克制하여 禮治를 회복할 수 있으면 노예들도 규칙을 따라서 통치에 복종할 수 있다. 이것을 '天下歸仁'이라 하였고 이렇게 하여 노예주 통치는 공고히 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²⁾

孔子가 '仁'을 여러차례 말했지만 그는 노예등 노동인민을 '仁'밖에 다 제외시켰으며 노예는 단지 부림을 당할 뿐이지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도리도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論語, 泰伯>'를 해석하였다. 楊榮國은 '民'을 노예, 노동인민, 人을 노예주, 귀족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孔子의 "仁者愛人"의 人은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가 사랑한 것은 노예주 귀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年), 422쪽.

12) <完固地維擇奴隸制的思想家>, <批林批孔文章滄編>, (北京, 人民出版社, 1974年), 7-12쪽.

“孔子는 당시에 붕괴되는 노예주 귀족의 입장에서 새로 일어난 봉건세력을 반대하였다. 그의 사상의 실질은 노예주 계급의 통치를 옹호하고 노동인민은 단지 착취, 노역, 통치될 수 있는 대상임을 논증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착취에 理由가 있고 造反에 罪가 있음’을 논증하려는 것이다. ... 이 때문에 뒷날의 착취계급은 봉건지주계급이건 자산계급이건 간에 그들이 아직 통치지위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孔子를 반대하고 孔子店을 타도하자고 외쳤지만 일단 정권을 얻게 되어 반동적인 통치계급이 된 후에는 오히려 모두 孔子의 사상을 이용하여 노동인민을 속여 자기네의 반통치를 위해 사용케 하였다. 그러므로 2000여년 이래 孔子가 ‘至聖先師’로 존경받았다. 단지 無産階級의 입장, 마르크스 역사유물주의 관점을 적용하여야만 비로소 孔子의 반동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¹³⁾

楊榮國은 임의로 編造하고 歷史를 剪裁하고 武斷的으로 結論을 내려 孔子에 대하여 人身攻擊하고 孔子의 人格을 侮辱하고 知識人들을 比방하였는데, 이것은 뒤에 ‘四人幫’ 등이 임의로 歷史를 改造하고 孔子를 比방하며 儒學을 부정한 惡劣한 先例를 남기게 된 것이다.

楊榮國은 선진시대 뿐 아니라 漢代에서 孔子를 비판한 사상가, 예컨대 王充의 <論衡> 중 ‘問孔’, ‘刺孟’ 편을 높이 평가하고 董仲舒와 <白虎通義>를 비평하면서 전자를 唯物論, 후자를 唯心先驗論이라고 도식화시켰다. 그리고 “中國 역사상 孔子가 宣揚한 唯心論, 先驗論은 당시 붕괴되는 노예주통치를 위하여 봉사한 것이며 그후 董仲舒 등이 발휘하여 二千여년의 봉건통치자가 인민을 압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¹⁴⁾고 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논조는 文革 당시 보편적인 견해가 되어 버렸다.

唐曉文은 <孔子는 全民教育家인가?>라는 글을 人民日報(1973年 9月 27日)에 발표하였는데 그는 孔子의 ‘有教無類’를 중심으로 孔子를 비판하였

13) 同上, 13-14쪽.

14) 同上, 25쪽.

다. 胡適은 이 귀절을 “教育은 일체 계급과 한계를 타파할 수 있으며” “일체 계급의 영역을 깨뜨릴 수 있는” “全民教育家”라고 하였다. 唐曉文은 劉少奇, 林彪 등이 尊孔을 일관하여 修正主義 教育路線을 밀고 나가 ‘有敎無類’의 이론을 고취시켜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현미경으로 이 문제를 관찰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論語>에 기록된 말들 중 ‘人’과 ‘民’의 두 개념은 구별되는 것이며 ‘人’은 노예 이외의 계급, 계층을 널리 가리키므로 노예주귀족, 일반노예주, 신흥지주계급과 개인노동자 등을 포괄하는데 ‘民’은 오로지 노예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誨’와 ‘敎’의 구분이 있는데 誨의 대상은 ‘人’이며 타일러 줌(誨)을 받는 것은 자발적이며, 강제적이 아닌데 단지 조건이 있다면 학비를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孔子가 말하는 誨는 노예 이외의 계급, 계층에 대하여 교육을 한 것이다. <論語>에서 말한 ‘敎’는 ‘民’과 관련되어 가르침(敎)의 대상은 ‘民’이며 그 내용은 군사훈련과 사상주입이다. 가르치는(敎) 자는 ‘人’이지만 가르침(敎)을 받는자는 ‘民’이다. 그들의 관계는 支配와 服從의 관계이며, 교육을 받는 것은 무조건적이며 강제적이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孔子가 말하는 ‘敎’는 노예에 대한 교련을 가리키는 것이며 孔子가 말한 ‘有敎無類’는 씨족을 나누지 않고 지역편제에 따라서 노예에 대하여 강제교련을 진행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무슨 ‘계급한계를 타파하여’ 학생을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⁵⁾ 이처럼 ‘有敎無類’에 대한 억지 해석을 하여 교육의 계급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 周恩來가 1972년에 취한 교육정상화 조치를 겨냥한 것이다. 예컨대 大學에서 學生을 모집하고 文化考查를 실행하는 것 등이었다. 周恩來의 이러한 조치는 文革 末期에 儒家를 반대하는 極左思潮에 의하여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뒤에 江青은 이 글을 批林批孔의 중요한 學

15) 唐曉文, <孔子是“全民教育家”嗎>, <批林批孔文章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1974), 27-40쪽.

習資料로 집어 넣기도 하였다.

石俞의 <論尊儒方法>이란 글은 공개적으로 儒法鬭爭을 논술한 첫번째 글이다. 이 글에 의하면 儒法鬭爭의 본질은 오래동안 전도되어 파묻혀 있었으나 마르크스의 기본관점, 즉 계급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졌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孔子思想의 핵심은 仁인데 이것은 가장 뚜렷하게 그 노예주 귀족본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그 구체내용은 '復禮'에 반영되어 있는데 禮란 노예주와 노예의 貴賤尊卑를 구분하는 것이며 '禮治'란 노예주계급의 專制政治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復禮란 西周노예제 전성시기의 정치제도를 회복하여 타락된 노예주 귀족의 전제정치의 마지막 국면을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글에 의하면 法家は 新農지주계급의 정치경제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儒家와 격렬한 투쟁 중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초기 法家の 대표인물인 李悝, 吳起, 商鞅 등은 '法治'를 가지고 '禮治'를 대치할 것을 명확히 주장하고 魏國, 楚國, 秦國에서 變法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孟子는 孔子의 仁사상을 한걸음 더 발전시킨 反動思想으로서 '仁政'이라는 복고적 이론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孟子는 "仁政은 반드시 經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것을 그는 사람마다 모두 恒産·恒業을 가지는 '井田制'라고 해석한 다음 노예들이 恒産을 갖기는 어렵고 단지 노예라는 恒業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른바 '井田制'는 孟子가 노예주 토지소유제에 대하여 理想化한 것이며 그 목적은 法家の "開阡陌"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石俞에 의하면 사상영역 내에서 걸출한 法家の 인물인 荀子和 그의 제자 韓非子가 나타나 孟子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는데 그는 荀子를 儒家의 叛逆者이며 그의 기본사상체계는 法家에 속한다고 보았다. 韓非子는 '法后

16) 石俞, <論尊儒反法>, 景池等著, <論尊儒反法>, (香港, 三聯書店, 1973年), 12 - 20쪽.

王'을 가지고 儒家의 '法先王'을 비판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것을 또 계급적으로 해석하여 신흥지주계급의 입장에서 노예제를 미화하는 맹자의 '仁政' 사상을 비판하고 통일된 중앙집권을 건립한 봉건국가를 위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秦始皇은 法家の 이론에 근거하여 中國을 統一하여 文字를 統一하고 道路를 修築하고, 分封制를 폐지하고 郡縣制를 실행하는 등 일련의 진보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儒法鬭爭의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다.

石論의 "焚書坑儒"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견해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胡適의 영향으로 인하여 "焚書坑儒"를 秦始皇의 惡政으로 혹평하는데 사실 이것도 儒法鬭爭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秦이 中國을 統一한 뒤 신흥지주계급이 전국의 정권을 잡았으나 의식형태에서 儒家를 대표하는 守舊세력이 상당히 완강하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습적 점령지를 이용하여 反革命 복벽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복벽과 反복벽의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儒家와 法家の 대논전으로 표현되었다. 그 논전의 중심은 노예제의 分封制를 복벽하는가 중앙집권의 郡縣制를 건지하는가에 있었다. 秦始皇 34年 淳于越을 대표로 하는 儒生은 분봉제를 복벽할 것을 주장하고 李斯는 이런 이론이 중앙집권제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焚書'와 '私學'禁止를 통하여 儒家의 文化教育에 대한 권한을 빼앗아 버릴 것을 건의하여 秦始皇이 이를 비준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焚書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타격을 받은 유생들, 예컨대 盧生, 侯生 등은 여전히 복벽활동을 그치지 않고 '法治'를 비방하고 중앙집권을 공격하고 秦始皇을 저주하였다. 그리하여 "孔子를 誦法하는" 儒生에 대하여 進一步한 진압조치를 취하여 秦始皇 스스로 "옛것으로 오늘을 비난하는 [以古非今] 情節이 가장 엄중한 儒生 460여명을 咸陽에 물어 버렸다.[坑之咸陽]" 이것이 이른바

‘坑儒’의 사건이라고 소개하였다. “焚書坑儒”의 사건은 階級鬭爭의 산물이며 儒家의 복벽활동을 물리쳐 없애고 중앙집권의 봉건국가 제도를 건지 하여 역사상 진보적인 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¹⁷⁾

石俞에 의하면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 등의 글에서도 孔學을 비판하면서 新民主主義 革命 단계에서는 反封建의 文化는 타도되어야 하는 것이며 “무릇 尊孔讀經을 주장하고 舊禮·舊思想을 제창하며 新文化·新思潮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類의 文化의 대표이다”라고 한 귀절을 인용하여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孔子批判을 정치투쟁과 연관시켜 이렇게 말하였다.

“叛徒 劉少奇는 친히 曲阜에 가서 孔子에게 ‘朝聖’한 적이 있으며 또 다시 孔孟之道의 <修養>을 販賣하여 20세기 60년대의 尊孔의 추한 연극을 직접 연출하였다. 賣國賊 林彪도 孔子를 부풀려 떠받들며 秦始皇의 ‘焚書坑儒’를 크게 욕하면서 공개적으로 朱熹의 ‘待人’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표방하였다.”¹⁸⁾

儒法鬭爭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劉少奇와 林彪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文革 末期에 中國 思想史에서 儒法鬭爭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낸 것은 순수한 학문적 논의라기 보다는 秦始皇과도 비견되는 毛澤東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한층 더 높임으로서 毛澤東사상을 國教化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같은 논조는 羅思鼎의 <秦王朝의 建立過程 中の 복벽과 反복벽의 鬭爭 - 儒法鬭爭의 社會基礎를 檢하여 論함>이라는 글에 계속 나타난다. 羅思鼎에 의하면 秦國의 奴隸制에서 封建制로 향는 과도기는 秦孝公에서

17) 同上, 24쪽.

18) 同上, 29쪽.

시작되어 秦始皇에서 완성되었는데 그간 7代의 國君이 바뀌었으며 이 150여年 동안 變法과 反變法, 復辟과 反復辟의 鬭爭이 총만해 있었다는 것이다. 秦始皇이 상앙, 范수의 사업을 제승하여 中國에서 봉건통일사업을 완성한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다. 秦始皇이 정권을 잡은 뒤에 두가지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하나는 노예주귀족의 대표인 丞相 呂不韋를 우두머리로 삼는 집단을 뿌리뽑아 버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焚書坑儒”의 革命的 조치를 실행하여 지주계급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전국시대 말기에 齊, 楚 등 六國에서 등용된 宰相은 모두 宗室 貴族이었는데 반하여 秦國만이 오히려 대량으로 客卿을 임용하였다는 것이다. 呂不韋는 秦의 이러한 정치기회를 타고 丞相이 되어 奴隸制를 복벽하려는 정치노선을 진행시켜 새로운 제도에 불만을 가진 知識분자들을 불러 모아 <呂氏春秋>를 편찬하고 秦國에서 전통적 지위를 차지한 法家思想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秦始皇이 자리에 오른 뒤에는 呂不韋를 우두머리로 하는 귀족노예집단의 투쟁에 직면하게 되자 韓非子의 “과오를 刑罰하는 것은 大臣을 피하지 않고 酷을 상주는 것은 匹夫를 빠뜨리지 않는다”¹⁹⁾는 원칙에 근거하여 “재상은 반드시 州部에서 기용하며 猛將은 반드시 卒伍에서 발견한다”는 정책을 실행하여 呂不韋의 관직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 뒤 呂不韋가 B.C 235년 죄가 두려워 자살하자 秦國의 통치는 강화되어 10여년이 지난 B.C 221년에 秦始皇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羅思鼎은 이것을 일러 신흥지주계급의 거대한 승리이며 또한 法家思想의 거대한 승리라고 하였다.²⁰⁾

秦始皇의 ‘焚書坑儒’는 역사상 새로운 生産關係를 옹호하는 革命行動이라고 羅氏는 추켜 세우며 中國 역대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모두 이 革命

19) 羅思鼎, <秦王朝建立過程中復辟與反復辟的鬭爭>, <批林批孔文章匯編>, 42-56쪽.

20) 同上, 57쪽.

행동에 대하여 환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明代의 儒家 반역자인 李贄가 秦始皇을 '千古의 유일한 황제' [千古一帝]라고 칭찬한 것을 그 예로써 인용하였다.²¹⁾ 그리고 또 劉少奇와 林彪를 지주자산계급의 帝國主義, 修正主義의 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이 秦始皇을 저주하고 儒家를 높이 받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사실 石俞와 羅思鼎이 쓴 두 문장은 모두 姚文元이 친히 組織하여 편집해 쓴 것이다. 羅氏의 筆名의 글은 특히 呂不韋를 비판하는데 초점이 모아진 것은 呂不韋가 宰相을 지냈다는 것이며, 그것은 은연중 당시의 총리인 周恩來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²²⁾ 江靑이 이 글을 보고 "이 한편의 글이 훌륭한 것은 呂不韋를 비판한 것이다. 呂不韋는 재상이었다"고 하면서 江靑은 姚文元에 대하여 '宰相儒'로 비판하면 "現代의 大儒를 비판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現代의 大儒는 바로 周恩來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江靑을 우두머리로 하는 四人幫이 儒法鬭爭의 도식을 만든 이유는 毛澤東을 秦始皇과 같이 떠받들고 총리인 周恩來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鄧小平을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1974年 1月 21日 王洪文, 江靑은 毛澤東에게 편지를 써서 北京大學, 清華大學의 大批判組가 편집한 <林彪와 孟子之道>를 전국에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毛澤東의 비준을 거쳐 1월 28일 중공의 중앙은 이 글을 1974년 제1호의 문건으로 삼아 全黨과 全國에 발송하였다.²³⁾ 이 글에 의하면 林彪는 筆記本에다 "中庸之道", "會理", "德, 忠恕, 仁義" 등과 같은 글자를 썼다는 것인데 林彪는 孔子의 '克己復禮'를 본 받아 資本主義를 복벽하려고 허망하게 시도하였으며 孔子의 天命論으로 唯物論을 반대하였고, 中庸之道로 唯物辯證法을 反對하였고, 德, 仁義, 忠恕 등으로 마르크스주의

21) 同上, 60쪽.

22) 宋仲福, 趙吉惠, 悲大洋, <儒學在現代中國>, (鄭州, 中國古籍出版社, 1991年), 326쪽.

23) 同上, 337쪽.

의 階級鬭爭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林彪는 원래 毛澤東이 발동한 文化大革命의 지지자였으며 革命 전에는 毛澤東의 개인승배를 고취시켰으며 文革 中期에는 毛澤東보다 더 좌경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관련있는 정책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林彪가 설명 '克己復禮'와 '中庸之道'란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개인적인 일일 뿐 결코 公開적으로 선전하거나 또는 정책으로 전환시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균중운동으로 孔孟之道를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批孔운동의 참된 목적이 모두 周恩來를 향해 있는 이상 孔子와 儒學은 결국 文革 당시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批孔운동이 확산된 것은 1974년이었고 6,7월 경에는 최고조에 달하였다고 한다. 宋仲福에 의하면 江青은 노골적으로 批孔을 빌어 周恩來를 타도하려는 의도를 發하였으려 친히 그 寫作組를 이끌고 天津에 가서 萬人大會를 열고 儒法鬭爭을 크게 講義하였으며 이것으로 工農群衆을 發動하려고 試圖하였고, 江青은 天津站 理論小組의 <儒法鬭爭講稿>를 추천하고 드높이였다고 한다. 江青은 天津에서 노골적으로 “이번 운동의 중점은 黨内の 大儒를 批判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黨内 大儒는 周恩來를 가리키는 것이다. 江青의 講演과 서로 호응되는 것은 <人民日報> 6月 18日字 社論 <鬭爭 中에 理論隊伍를 培養함>이란 다음과 같은 글이었다. “2000千여명의 儒法鬭爭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에까지 계속된다. 또한 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²⁵⁾ 그후 <紅旗>, <人民日報>에 孔子 및 儒家를 批判하는 글들이 수 없이 많이 실렸는데 그 내용들은 대체로 첫째, 孔子·孟子등 歷代 儒學의 대표적 인물을 戲畫하여 醜物

24) 同上, 338쪽.

25) 同上, 340쪽.

로 만들고 儒學을 전반적으로 부정한 것들이며, 둘째, 儒家를 복돋거나 孔子를 존중하는 일파는 모두 賣國의이며 法家は 모두 愛國의이라는 주장들, 셋째, 계속 孔丘를 批判하고 宰相을 비판하여 周恩來, 鄧小平 등을 影射한 것들이었다.²⁶⁾

北京大學 儒法鬭爭史 編寫小組가 1975년 哲學社會科學基礎讀物로 펴낸 <儒法鬭爭史概論>은 儒法鬭爭의 歷史를 (一)春秋戰國 奴隸制가 封建制로 향하는 轉變時期의 儒法鬭爭, (二)秦始皇이 中國을 통일한 뒤 封建社會 中의 儒法鬭爭, (三)近代資本階級 民主革命期의 儒法鬭爭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序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儒法鬭爭의 歷史는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毛澤東思想으로 지도를 받고 各 歷史時期의 階級矛盾과 民族矛盾을 具體的으로 分析하고 儒法 두갈래 路線의 鬭爭을 明確하게 天命하고 勞動人民의 革命鬭爭의 儒家에 반대한 法家の 鬭爭에 대한 推進力과 影響을 天命하여 法家の 進步作用에 대하여 필요한 歷史的 肯定을 해야한다 歷史上的 儒法鬭爭은 반드시 ‘옛것은 오늘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원칙을 堅持하여야 된다. 儒法鬭爭과 全體 階級鬭爭의 歷史經驗을 總結하는데 뜻을 모아 社會主義 革命時期의 現實을 위해 奉仕하고 反修, 防修를 위하여 奉仕하고 無產階級の 專政을 위하여 奉仕해야 한다.”²⁷⁾

四人幫은 마르크스의 階級鬭爭을 中國歷史에 不當하게 適用하면서 만들어 낸것이 儒法鬭爭史인 것이다. 文革期間(10年) 批孔에 대하여 쓴 글이 4000여편이나 되며 1973年에서 1976年間 出版된 儒家를 批判한 圖書가 1400여種이나 된다고 한다.²⁸⁾

26) 同上, 342쪽.

27) <儒法鬭爭史概論>, 1-2쪽.

28) 주22)와 同, 345쪽.

IV. 文革後의 孔子 및 儒家에 대한 再評價

批林, 反儒, 尊法을 하는 文革期間에도 공개적으로 批孔에 반대한 梁순 명같은 용감한 知識人도 있었다. 그러한 정신은 '四人幫'이 沒落한 뒤 孔子와 儒學에 대한 새로운 評價를 내리는데 중요한 活力이 되었던 것이다.

1978年 부터 시작한 孔子討論會가 8회에 걸쳐 北京, 齊南, 曲阜 등지에 서 會議를 開催하는 동안 孔子와 儒家에 대하여 文革期中에 심어 놓았던 歪曲된 視覺을 바로 잡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였다. 1989년에는 "儒學國際學術討論會"까지 열어 孔子 및 儒學에 대한 歷史的 意味와 現代社會의 適用問題까지 論하고 있다. 그것은 1978年 8月 12日 龐朴이 <孔子思想의 再評價>라는 글을 <光明日報>에 발표한 이래 1984년에 "中國孔子基金會"까지 設立되어 儒學에 대한 研究를 本格化하기 시작한 것이다.

第1次 孔子討論會는 山東大學에서 1978年 10月 21日에서 30日까지 開催하였다. 사실상 '四人幫'이 沒落한 뒤의 첫번째 討論會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四人幫'의 孔子에 대한 잘못된 評價를 是正하는데 割愛되었고, 그 밖에 '中庸'思想에 대한 評價, 孔子와 封建專制主義 問題도 함께 討論되었다. 會議參席者들의 이러한 諸問題에 대하여 다른 見解들도 提出되었으나 '四人幫'의 批孔運動에 대하여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參席者들의 一致된 見解였다고 한다.²⁹⁾

第2次 孔子討論會는 曲阜師範大學에서 1980年 10月 28日에서 11月 3日까지 13個省에서 100여명의 學者가 參席하였다. 이번 會議에서는 孔子의 哲學思想, 教育思想, 批孔과 封建專制主義批判등의 問題가 討論되었다. 哲學思想 討論에서 孔子의 天命觀이 唯物主義的인가 또는 唯心主義的인가 하는 問題는 아직도 마르크스주의 敎條主義的 解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29) 同上, 352쪽.

다. 이 會議에서는 특히 “孔子와 中國封建專制主義 關係”에 관한 論爭이 비교적 激烈하였는데 그것은 “三綱設과 孔子와의 關係問題”였다. 어떤 학자는 孔子와 歷代 孔子崇拜者는 모두 三綱을 출발과 歸宿으로 삼는데 이 三綱設이 封建專制의 요구에 더욱 잘 合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封建專制主義를 批判하려면 반드시 批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文革의 批孔殘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學者는 “孔子·孟子는 모두 三綱을 提出한 적이 없으며, 三綱은 法家の 集大成者인 韓非子の <韓非子, 忠孝篇>에 처음 提示되었는데 30) 뒤에 董仲舒가 發揮하였고” 그리고 <禮緯, 含文嘉>라는 緯書에 “君爲 臣綱, 父爲子綱, 父爲妻綱”이란 用語가 명확히 提示되었으므로 封建主義를 批判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漢代에 董仲舒에 의하여 諸子百家는 罷黜되고 儒家만이 獨尊되었는데 이 때의 儒家는 孟子的 人 原始儒家가 아니라 陰陽家와 法家の 影響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진 變質된 儒家였다. 그것은 漢代中央統治執權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三綱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批孔의 立場에서 學者는 三綱을 단지 儒家思想이란 점에서 批判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學者는 三綱이 원래 法家에서 연유되었음을 밝힘으로서 批孔의 誤謬를 지적한 것이다. 이 會議에 參席했던 學者들은 文革期間중 ‘批林批孔’ 당시 打擊을 받고 迫害을 받았던 學者, 專門家들의 名譽를 回復하는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고 한다. 31)

第3次 討論會는 曲阜師院에서 1983年 4月 21日에서 25日까지 200여명의 學者가 討論하였는데 이번 主題는 孔子研究의 方法論 問題였다. 여기서 주로 孔子研究의 三分法과 “尊孔과 反孔의 問題”, “打倒孔子店” 등의 問題가 激論되었다. ‘三分法’이란 孔子의 思想을 精華, 찌꺼기, 그리고 精華와

30) <韓非子, 忠孝>, “臣事君, 子事父, 妻事夫, 三者順卽天下治, 三者逆卽天下亂 此天下之常道也”, <韓非子集釋>,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107-1108쪽.

31) 주22)와 同, 354쪽.

찌꺼기의 混合의 세부분으로 나누고 精華는 發揮시키고 찌꺼기는 내버리고 섞인 것은 자세히 研究해야한다는 주장이다. 尊孔과 反孔의 問題는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科學思想에 비추어 再天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마르크스의 階級鬭爭을 敎條的으로 適用하여 儒法鬭爭論이 생긴 것을 은연중 批判한 것이기도 하다. ‘打倒孔子店’의 口號는 5·4運動 時期의 代表的인 口號가 아니었는데 文革中에 ‘四人幫’이 批孔의 口號와 연결시켜 사용하면서 文化遺産의 虛無主義가 팽배해졌다는 것이다.³²⁾

第4次 孔子討論會는 曲阜師院에서 1984年 9月 26日-29日에 孔子像 除幕式과 함께 “中國孔子基金會”를 설립시켜 孔子와 儒學에 대한 대대적인 學術的 研究를 가능케 하여 國際學術大會를 開催하는 힘을 길러가게 한 것이다.

第5次 孔子討論會는 北京에서 1985年 6月 10日-15日에 開催되었는데 이 討論會의 中心問題는 “尊孔”과 “批孔”에 대한 科學的인 評價였다. 張岱年은 “尊孔의 時代는 이미 지나갔다. 맹목적으로 反孔하던 時代도 이미 지나갔다. 時代는 前進하고 있다. 과거의 錯誤는 重複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현재적인 任務는 孔子와 儒學에 대하여 科學的인 考察을 進行하고 歷史的, 辨證法的 分析을 하여 孔學中의 民主性의 精髓를 發揚하고 그 중의 封建的인 찌꺼기를 反對하는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분명히 文革時代의 批孔에 대한 錯誤를 反省하는 面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孔子를 尊崇하는 것이 아니라 科學的인 考察과 辨證法的 分析을 통한 새로운 理解를 시도하는 것이 엿보인다. 辨證法이란 用語를 사용하면서도 마르크스나 毛澤東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文革時代의 敎條主義에서 이미 벗어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同上, 355쪽.

33) 同上, 356쪽.

第6次 孔子討論會는 中國 孔子基金會와 싱가포르 東亞哲學研究所가 聯合하여 1987年 8月 31日-9月 4日 曲阜에서 開催된 “儒學國際學術討論會”이다. 孔子와 儒學에 관한 國際學術大會는 中共政權이 成立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大會에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 美洲, 오스트레일리아州까지 12개 地域의 學者들이 70여편 이상의 論文을 발표하여 1500여쪽에 달하는 論文集을 出刊하기도 하였다. 이 學術大會에 참가한 많은 學者들은 儒家學說에 保守的인 面이 있는가 하면 또한 活力的인 面도 있다. 이것은 中華民族思想의 結晶일 뿐만 아니라 世界文化思想의 寶庫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家思想의 우수한 要素를 研究 흡수하여 中國이 必야호로 進行하는 改革·開放事業에 從事하는데 寄與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다시말해 儒家思想이 비록 保守的인 面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改革과 開放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文革期間에 儒家는 退行, 法家是 進歩라는 낡은 圖式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孔子의 思想에는 여전히 二重性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 匡井明은 <孔子評論, 尊論>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封建統治階級の 봉사를 위한 忠實한 代辯者인 孔子는 그의 思想의 基調가 濃厚한 封建性, 保守性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理解하지 못하거나 理解하지 않으면 歷史唯物論者가 아니다. 동시에 위대한 思想家로서 일정한 정도상에서 自覺的으로 또는 自覺하지 못하면서 時代와 階級の 局限性을 돌파하여 약간의 問題들(예컨대 人民의 苦痛을 동정함, 治學, 敎育, 品德, 修養 등)에 대하여 멀리 높게 내다볼 수 있었다. 이 점으로부터 孔子 思想중 일정하게 뚜렷한 人民性, 民主性, 적극적인 要素를 띠고 있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理解하지 못하거나 認定하지 않으면, 辨證唯物論者가 아니다.”³⁴⁾

34) 孫繁, <孔子의 平等思想與儒家의 傳統>, 中國孔子基金會, 新加坡東亞哲學研究所, <儒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上·下, (山東, 齊魯書社, 1989), 172等.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의 두 基調인 歷史的 唯物論(HIMAT)과 辨證法的 唯物論(DIAMAT)의 標準으로 孔子의 思想을 再評價한 것이다. 歷史的 唯物論의 立場에서 보면 孔子는 封建的 保守的인 人物이요, 辨證法的 唯物論에서 보면 孔子는 人民을 위한 民主的, 積極的 思想家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 立場에서 批判的인 繼承이라는 현재의 觀點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張岱年에 의하면, 길고 긴 歷史의 過程중에 儒學은 統治思想이 되어 民族의 凝集力을 增強시켜 積極的인 作用을 가지고 있으며 또 '人民'을 重視하고 "0學于文"을 強調하여 中國社會의 發展에 추진적인 作用을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問題에만 주의력을 집중시켜 物의 問題에 대하여 소홀한 결과 自然科學의 研究의 理論基礎나 方法論에 대하여 심각한 缺陷³⁵⁾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張豈之에 의하면, 中國의 儒學思想에는 精華도 있고 찌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國粹"으로 높일 수 없고 全般的으로 不正할 수 없으며 具體的으로 分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原則下에서 中國儒學과 社會主義 4大現代化를 連結시켜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를 建設시키는데 있어서 孔子가 提示한 "和而不同",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同等의 觀點은 繼續 發揮시켜 社會主義 精神文明의 建設에 공헌토록 해야 한다³⁶⁾는 것이다.

劉蔚華는 仁學은 儒學體系中에서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므로 仁學에 대하여 體系적으로 分析하고 그 發展을 探究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3가지 反省的 視覺을 提示하였다. 仁學은 첫째 어버이를 사랑하고(親親), 祖上을 恭敬하여(敬祖) 家庭, 親族, 民族을 융집시키는 作用을 하였다. 그러나 現代의 經濟發展은 個人的 機能의 分化和 專門化를 要求하여 經濟的 流動의

35) 張岱年, <儒學發展過程中的統一與分殊>, 同上 論文集, 302쪽.

36) 張豈之, <儒學思想的歷史演變及其作用>, 同上 論文集, 319쪽.

需要에 適應하려면 地域과 親族群體의 限界를 打破해야 하는 점에서 仁學은 이에 違反된다는 것이다. 둘째 “克己復禮”는 個人이 社會規範에 服從을 요구하는데 禁慾의 길을 통해 社會秩序를 維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칫 사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欲求와 필요한 動機마저 制限하여 經濟發展에 束縛과 弱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 仁學은 差等的인 사랑이며 條件이 있고 親流를 나누어 人間과 人間의 關係를 처리하기 때문에 現代社會와 人類發展에 필요한 博愛精神과 비교할 때 넓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學은 時代의 要求에 맞추어 根本적으로 改造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改造를 통하여 비로서 새로운 仁學이 탄생될 수 있다³⁷⁾는 것이다. 이것은 儒學의 仁學에 대한 創造的 繼承을 뜻하는 것이며 文革때 孔學에 대한 무조건적인 批判과 比較할 때 天壤之差가 있는 것이다.

金春峰은 위와 비슷한 考察을 통하여 仁學은 일종의 生命力을 가진 思想이므로 각 時代마다 表現된 形式은 달랐을 지라도 그것이 體現하는 精神은 일관되어왔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단지 形式에만 치중한다면[以禮代仁] 儒家思想은 統一性和 傳統성이 없을 것이며, 또 形式을 소홀히 한다면[以仁代禮] 仁學은 그 生命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近代에 만약 資產階級の 民主, 自由, 人權思想을 吸收하지 못하고 ‘克己復禮爲仁’ 이란 낡은 투를 고집하여 禮를 仁의 唯一한 形式으로 삼는다면, 仁의 生命과 活力은 保全維持할 방도가 없다”³⁸⁾고 하였다. 다시말해 仁學의 生命을 유지하기 위하여 封建社會의 秩序에 필요한 形式인 禮가 아닌 近代 市民社會에 맞는 形式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禮治가 아닌 法治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러다고 하여 文革때의 ‘尊法’은 결코 아닌 것이다. 民主化된 法治와 法家を 높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37) 劉蔚華, <儒學仁學的演變>, 同上 論文集, 389-391쪽.

38) 金春峰, <孔子仁學思想的演變>, 同上 論文集, 433쪽.

烏恩溥은 中國의 傳統文化는 儒學으로 주체를 삼는 多元的으로 결합된 일종의 綜合形의 文化라고 하면서 儒·法의 會一問題를 다루었다. 秦始皇이 6國을 統一한 것은 물론 法流路線을 위하여 勝利하였으며 秦始皇이 儒家를 反對하고 彈壓하였다는것을 不正하지 않았으며 秦始皇 統一 以前에 儒家와 法가가 根本的으로 對立하였다는 것도 否認하지 않았다. 이것은 文革期에 儒法鬭爭의 論調와 別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文革때에는 秦漢以後 近代에 이르기 까지도 兩家의 鬭爭을 誇張하여 주장한데 반하여 烏氏는 漢代統一帝國이 성립되자 秦의 暴政에 대한 일종의 反動으로 일시적으로 黃老思想이 일어났으며 얼마 안되어 武帝의 '獨尊儒術'의 政策이 確立되면서 儒家의 位置가 높아지는 同時에 法家의 地位도 내려간 것이 아니라 儒法並同, 儒法合流의 趨勢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漢代의 思想家들은 자기의 思想과 觀點을 儒家의 思想體系속에 끌어들이와 한데 녹여서 儒法並存 또는 儒法合一의 局面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³⁹⁾ 그 實例로 董仲舒가 天人感應論을 說明하면서 周馬의 陰陽學論에다 德과 刑의 두가지 要素를 주입시켜 "天道의 위대함은 陰陽에 있다. 陽은 德이 되고 陰은 刑이 된다. 刑은 죽음을 主觀하고 德은 삶을 主觀한다"⁴⁰⁾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白虎通>도 "禮"와 "刑"을 並列하여 儒法合流를 주장하였다⁴¹⁾는 것이다. 文革때와는 전혀 다른 論調임을 알 수가 있다.

文革과 儒學의 關係 및 그 批判은 李錦全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儒學은 人際關係를 처리하는 思想準則의 하나는 社會의 差別을 옹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점은 革命隊伍중에서도 影響을 주어 자기가 책임 있는 地位에 올라가면, 家長式으로 黨內에서 명령하고 黨內的 모든 것을 꾸짖고 마음대로 黨員을 處罰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의 思想이

39) 烏恩溥, <綜合傳統文化論>, 同上: 論文集, 518쪽.

40) <漢書, 董仲舒傳>, "天下之大者在陰陽, 陽爲德, 陰爲刑, 刑主殺而德主生".

41) 주39)와 同.

封建儒學의 影響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黨內的 個人崇拜가 出現하고 그것이 탄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黨內 正常生活가 파괴되고 民主集中制가 歪曲되었고 이른바 文化大革命中 극히 怪異하고 특이한 矛盾現象이 發生하여 한편으로는 極左群衆運動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個人崇拜의 熱狂이 일어난 것이다.

李錦全은 이렇게 말하였다.

“林彪와 四人幫, 이 野心家, 陰謀家는 한편으로 群衆의 無政府主義를 이용하여 우리의 一般民主主義 政權을 그르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革命領導의 權威를 빌어 四人幫一派의 黨權을 찬탈하기 위해 庇護하였다. 傳統文化에 대하여 ‘四舊’를 쓸어버리고 이른바 評法批儒運動을 發動하여 겉으로 볼 때 가장 革命的 極左였으나 이런 亂批亂鬥中에서 마음대로 人權을 侵奪하고 民主와 法制를 파괴하였다. 사실상 幫0두목들은 광대한 人民에 대하여 封建 파시스트 專制政治의 極右를 實行하였다.”⁴²⁾

李錦全은 傳統儒學의 人間과 人間[人際]의 關係의 矛盾의 二重性이 있는데 親親과 尊尊을 重視하기 때문에 人際關係를 처리하는데 있어 老人을 恭敬하고 아이를 아껴주고 [敬老親兒] 上級의 領導에 服從하여 家庭과 社會를 安定시키는 肯定的인 面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나 年長者를 위하여 감히 말하지 않고 피하기[0위]때문에 官僚主義를 만연시키고 아버지의 과실을 덮어두는 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儒學은 道德人格의 修養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平等的인 要求를 하는데 이것은 儒學의 民主的인 精華이며 훌륭한 傳統이다. 그러나 뒤에 거짓君子, 가짜道學이 생겨 言行이 一致되지 못한 行爲를 한다. 말로는 大公無私해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私의인 權謀術數를 취하는데 그 典型的인

42) 李錦全, <儒學論人際關係의 矛盾兩重性思想>, 同上 論文集, 191쪽.

예가 林彪와 '四人幫'이라는 것이다.

社會主義社會에서 人際關係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正當하게 儒學 中の 자기를 바르게 하고[正己] 남을 바로 잡아주며 [正人], 自己完成[成己]과 동시에 他人의 完成[成物]을 꾀하는 훌륭한 傳統을 繼承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儒學중의 精髓는 잘 保存하고 길러내며 그 찌꺼기는 내버려야 한다⁴³⁾는 것이다.

V. 마무리

中國은 西歐化 및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傳統的 儒家思想과 마찰을 일으켜 5.4運動에서는 '打倒孔子店'이란 口號를 남게 하였고, '文化大革命'의 소용돌이 속에서 儒學을 한차례 極端의인 否定的 評價를 받게 하였다. 이른바 '評法批儒'나 '儒法鬭爭'이 그것이다. 이것은 물론 權力鬭爭의 일환으로 보는 見解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權力을 잡은 인물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思想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도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된다. 文革은 바로 그 남은 意識과 文化를 깨뜨리고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의 文化를 建設하겠다는 毛澤東의 思想을 極端의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四舊로 대표되는 남은 文化는 儒家, 새로운 文化는 法家라는 도식을 만들어내어 儒法鬭爭을 中國社會革命的 한 모델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鬭爭理論을 제시했던 四人幫과 그 추종자들은 儒法鬭爭이 中國의 2000年 歷史에 계속 나타났는데 그것은 革新과 守舊, 前進과 退步의 두가지 路線鬭爭이 時代마다 나타났다는 것이다.

文革期에 孔子思想중 批判이 되었던 것은 역시 "仁", "克己復禮" 등이

43) 同上, 192-193쪽.

었다. 文革을 주도한 四人幫과 그 추종자들은 孔子의 仁은 勞動人民을 제외시킨 偏頗의인 사랑이지 모든 사람을 그 속에 包含시킨 것이 아니라는 기발한 解析을 가하였으며 <論語>에 기록된 '仁'과 '民'은 서로 구별되는 概念으로 民은 오로지 奴隸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者愛人'의 범위 속에 奴隸, 즉 勞動人民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結論을 내린 것이다. 이 解析은 勞動人民 즉 프롤레타리아 革命主體를 제외시킨 孔子의 仁思想이 封建的 守舊의인 것이므로 批判을 받아야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批孔運動은 四人幫의 沒落으로 終止符를 찍게되고 1978년부터 孔子討論會가 여러차례 열리면서 孔子에 대한 再解析이 나왔다. 이 討論에서 주로 尊孔과 反孔모두가 孔子思想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한 것이므로 孔子와 儒家思想속의 核心思想은 研究하고 發揚되어야 하며 그 찌꺼기 즉, 封建殘存는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文革期에 무조건 批孔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르며 中國式 社會主義建設에 儒家思想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